

<찬불 계송 7>

極樂堂前滿月容 (극락당전만월용)
 玉毫金色照虛空 (옥호금색조허공)
 若人一念稱名號 (약인일념칭명호)
 頃刻圓成無量功 (경각원성무량공)

극락당 앞의 만월같은 모습이여
 옥호의 금색이 허공을 비추시네
 만약 일념으로 명호를 부르면
 잠깐 사이에 무량공덕을 원만히 이루리라.

<8월 8일 토요일 법회 식순>

- * 1부 : 사시헌공
 - ♪ 찬불가 연습
-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찬불계송
 - 청법가
 - 법문 : 육조단경2 - 종호스님(불교대학장)
 - 새신도 환영
 - 합창단 음성공양
 - 정근
 - 발원문 봉독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법회주제	법사
8. 15 (토)		광복절 (휴회)
8. 22 (토)	육조단경	종호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8. 29 (토)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명진관 A105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 인등 : 1년 5만원 <토요 사시도에 축원에 드립니다>
- ◎ 신청문의 :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정각원 신도회 7월 입출금 내역

내 용	수 입	지 출	잔 액
이월금			6,753,585
신도회비	920,000		
공양미 판매	515,000		
불단 떡		240,000	
불단 과일		150,000	
공양미 구입		180,000	
네팔지진기금		130,000	
합계	1,435,000	700,000	7,488,585

보시동참

☉ 8월 1일 불전 공양 ☉

₩1,174,000원

해주스님, 진우스님, 강은희, 고목훈, 광원기, 구리시효자봉비어
 광장, 권혁재, 김기현, 김원욱, 김종관, 김형근, 김혜인, 김효원,
 남대문효자손만두, 남창강, 노영수, 박사임, 박세협, 박영순, 박영태,
 박해창, 백광호, 세정심, 안기영, 안대준, 원서준, 윤순님, 윤호문,
 이기형, 이미진, 이봉자, 이성부, 이옥진, 이운서, 이인주, 이재용,
 이해은, 이형식, 정보현, 정지훈, 주호빈, 주호성, 최동희, 최선자,
 최옥향, 최유담, 한상훈, 한영욱, Hatshree Bhatt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291,44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 공양 ☉

강승심, 김순, 김희중, 도현팔, 방경철, 이유정, 이정아

☉ 공양 보시 ☉

- ❖ 불단 떡 : 무기명 불자님
- ❖ 불단 과일 : 정각원 신도회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과 전화번호를
 딱 한번만!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정각원 토요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8월 8일

제299호(週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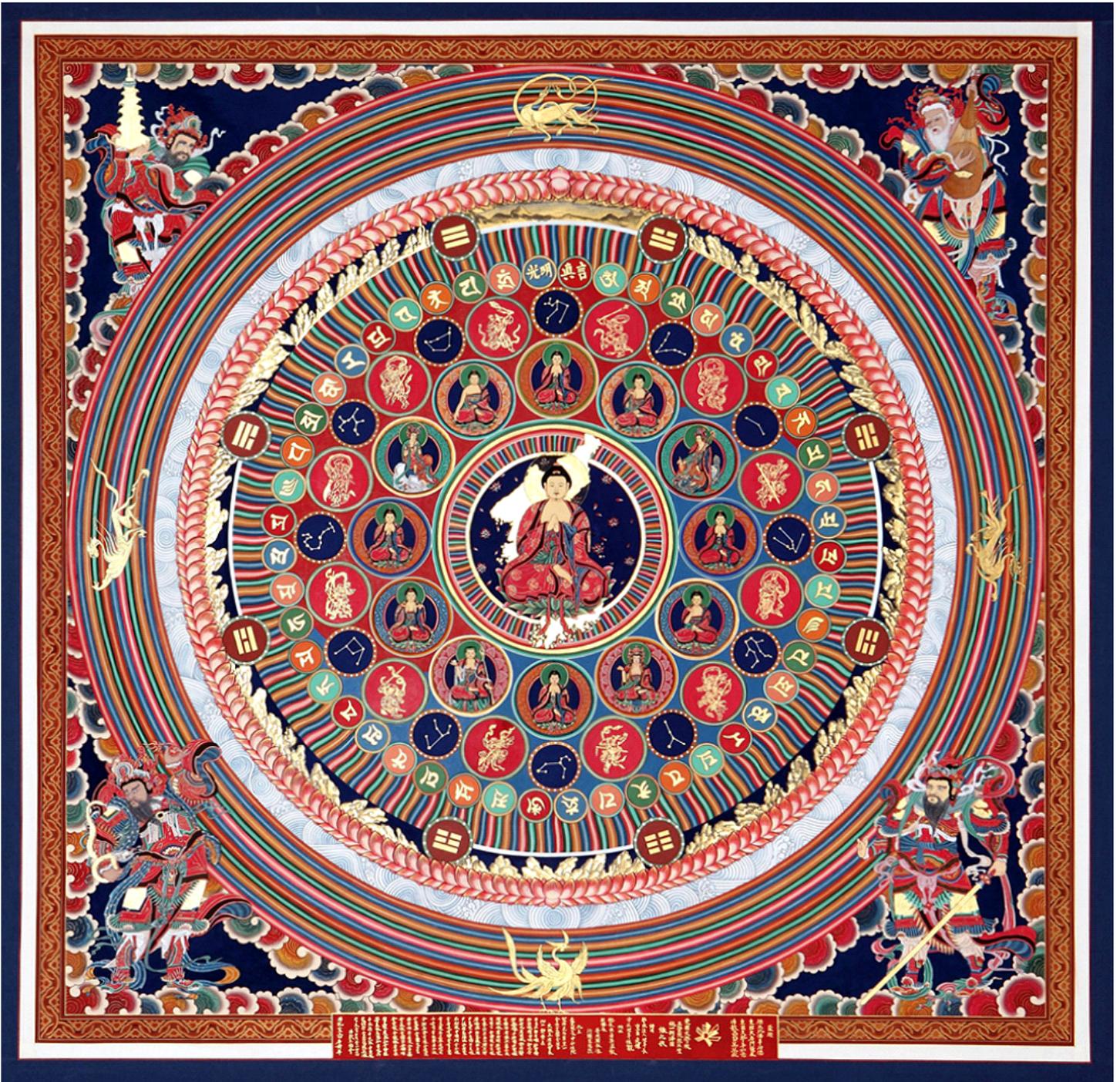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법구경]

정각원 신중탱화 “통일찰해도”



◎ 우리의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와 같이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의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연화장세계도는 『華嚴經』의 「華藏世界品」에서 설명하는 비로자나불의 정토를 나타내며, 지권인의 비로자나부처님을 둘러싼 12원 안에는 동·남·서·북의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 아미타, 노사나, 약사, 관음, 지장, 문수,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협시하고 계십니다. **정각원**

『壇經』의 사상

종호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

※ 自性(佛性)의 존재

⇒ 性と 중국선, 중도실상으로서의 性

* 자성의 실상

- 자성의 본체는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性體無生無滅無去無來)
-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自性本淨) / 자성은 스스로 청정하다.(自性自淨)
- 자성은 그릇됨도 없고 혼란함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다.(自性無非無亂無癡)

* 자성의 내재

- 일체 법은 모두 자성에 있다.(一切法盡在自性)
- 자성은 만법을 포함한다.(自性含萬法)
- 허공이 능히 일월성신과 대지산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듯이 세상 사람의 자성이 공한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것이 크다는 것이며, 만법은 모두가 다 자성이다.
- 삼세제불과 십이부경이 사람들의 성품 가운데 있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
(三世諸佛 十二部經 云在人性中 本自具有)
- 선지식들이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지만 반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견성해야 한다. 선지식들이여,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에는 본래 아무 차이가 없다. 다만 반연 때문에 미혹과 깨달음이 있는 것이니, 미혹하면 어리석고 깨달으면 지혜로운 것이다.

* 자성의 공용

- 반야는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고 존재한다.(般若常在不離自性)
-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인식해 알지만 일체의 모든 경계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자재한다.(自性起念 雖即見聞覺知 不染萬境而常自在)
- 선지식들이여,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짓는 것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행함이 부처의 행이고,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루는 것이 부처의 도이다.
(見自性自淨 自修自作 自性法身 自行佛行 自作自成 佛道)

* 자성삼신 - 그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삼신불을 보게 하겠다. 「내 색신의 청정법신불께 귀의하오며, 내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께 귀의하오며, 내 색신의 당래원만보신불께 귀의합니다.(이상 삼참)」 색신은 집이니 귀의한다고 할 수 없다. 삼신불은 자신의 법성 안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 여래를 찾고 자신의 색신 안에 있는 삼성불을 보지 못한다.

삼신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기나니 무엇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들이여, 사람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깨끗하며 만법이 자신의 성품에 있으니, 일체의 나쁜 일을 생각하면 악한 행을 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선한 행을 닦는다. 이처럼 모든 법이 다 자기의 성품에 있으며, 자신의 성품이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한다. 마치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단지 구름이 덮여 가리기 때문에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 일월성신을 훤히 볼 수가 없다가 문득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안개를 말아 흩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다 드러나는 것과 같다.

무엇을 천백억화신불이라 하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성품이 비어 고요하지만 생각하면 스스로 변화한다. 악한 법을 생각하면 지옥이 되고 선한 법을 생각하면 천당이 되며, (생각이) 毒害스러우면 축생이 되고 자비로우면 보살이 되며, 지혜로우면 上界가 되고 어리석으면 아래 세계가 된다. 이처럼 자성의 변화는 매우 많으나 미혹한 이는 알아보지 못한다. 한 생각이 착하면 지혜가 생겨나니 이것을 자성의 화신이라고 한다.

무엇을 원만보신불이라고 하는가? 하나의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제거하고, 하나의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뒷일을 생각하라. 언제나 뒷생각이 착한 것을 보신불이라고 한다. 한 생각의 악한 과보는 천년의 선을 그치게 하고, 한 생각의 선한 과보는 천년의 악을 없애나니 시작함이 없는 그 언젠가부터 미래의 생각이 선한 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 자성삼보 - 자성의 삼보에 귀의하나니 불이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바름이며, 승이란 깨끗함이다.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하여 샷되고 미혹함이 생기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을 알며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샷되지 않으면 곧 애착이 없으니 이처럼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 한다. 자기의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신의 성품 속에 있어도 자신의 성품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한다.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삼귀의계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 부처님에게 귀의한다고 한다면 부처란 어느 곳에 있겠는가.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귀의할 바가 없으니 이미 귀의할 바가 없다면 그 말도 도리어 허망할 뿐이다.

* 자성을 깨달으면 그대로 부처 - 자신의 본래 성품인 자성을 깨달으면 그대로 부처.

-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라. 즉시에 활연히 깨달아 본래의 본심을 얻는다.
(識心見性 自成佛道 即時豁然 還得本心)

-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다.

(佛是自性作 莫向身(外)求 自性迷佛即衆生 自性悟衆生即是佛)